

지역 소식통

영농철 가뭄 피해 예방 총력

정읍시·정읍소방서 공동주관 '2017 재난 대비 현장 훈련'

정읍시와 정읍소방서가 공동주관한 '2017 재난 대비 현장 훈련'이 최근 신대인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지진 발생에 따른 체육관 붕괴 사고를 가정,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시됐다.

훈련에는 정읍시와 정읍소방서, 정읍경찰서, 제8088부대 4대대 등 12개 기관과 신대인 남·녀의방소방대, 정우의용소방대 3개 단체 등 총 15개 기관·단체 262명이 참가했다.

훈련 참가자들은 굴삭기 등 모두 36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날 현장에는 최대한 실제 지진 발생 상황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도 설치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실감나는 구조 활동과 화재진압, 구급활동, 긴급복구 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종합적인 사태수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정읍소방서와 유관기관 단체는 역할 분담과 협의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초동 대응했다.

김시장은 특히 "앞으로 이러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유관기관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강수량 감소에 따른 영농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6월 2일 기준 고창군의 누적강수량은 185.5mm로 평년 306.3mm의 60% 수준이며,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56.4% 수준에 불과하여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뭄위기관리 경계 단계에 해당함에 따라 군은 지난 달 31일부터 가뭄 해소 시 까지 가뭄대책 추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고창군부군수는 "저수지, 관정, 양수장 등 철저한 현장 점검 강화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 특히, 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파악에 따른 즉각적인 보고와 조치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가뭄대책 추진 TF팀을 5개 반으로 편성 △가뭄 현황의 파악



분석과 단계별 대책수립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지원계획 수립추진 △가뭄지역 비상용수 공급과 기술 인력 정비지원 등 전방위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뭄 피해상황은 없지만 지속적인 폭염 등 예기치 않은 기후상황을 대비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책용 장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자원확보대책, 제한급수대책, 항구적 용수공급원 대책, 소요자원 확보방안 등 가뭄 대비 중장기 대책수립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현충일 기념 민방위 장비 검열대회

보유장비 6종 848개 점검·검열·우수 민방위대 시상

정읍시가 제62회 현충일 기념 민방위 장비 검열대회를 가졌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는 '기억하자 현충일, 지켜내자 국토방위 현충일 기념 민방위 장비 검열대회(이하 민방위 장비 검열대회)'이다.

대회는 현충일을 기해 전시·사변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 지원 등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여 장비의 기능을 유지토록 함은 물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민방위 관계 공무원들은 2일부터 4일까지 시청 지하 상황실에서 322개 민방위대(지역대 298, 직장대 23, 여성대 1)가 보유한 6종 848개의 장비를 점검하고 검열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회본부장인 김용만 부시장이 읍·면·동 지역민방위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여성민방위대원, 읍·면·동 담당공무원 등 시 지역 민방위대장과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검열했다.

시는 검열을 통해 민방위 기본 장비인 전자 메가폰과 지휘용 앰프, 응급 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교통 신호봉 등 민방위 보유 장비의 파손과 부식 여부, 그리고 작동 여부와 충전 상태,

유효기간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사용 기간이 지난 상차 소독약과 탈지면 등 응급 처치 용품 132세트를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또 고장 난 전자 메가폰과 지휘용 앰프 등 3종 73개 장비는 장비를 거쳐 재사용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모두 65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고 밝혔다.

시는 검열 결과를 토대로 우수 민방위대를 선발, 시상했다. 김용만 부부장은 "호국영령들의 유훈을 받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며 "새 정부와 함께 국토방위와 민방위의 사명 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2분기 정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난 2일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박우정 고창군수와 부의장인

고창군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에게 직접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달아주고 참석한 전 기관에 배부했다.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바탕목을 상징하며,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해 패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홍보영상 시청과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 6·25전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에도 많은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62주년 현충일 추념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6일 고창읍 덕산리 현충탑 광장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국정신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그 높은 뜻을 추모할 수 있도록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원장, 유성영 국회의원, 이호근·장병식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보훈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전 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 조총발사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사낭송에 이어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군민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정이 느껴지는 현충탑 등 현충시설들을 찾아 국가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열들이 남긴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박우정 군수는 이날 추념식 후 일광기념관을 찾아 구한말 의병장 일광 정시해 선생 영정 참배 후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를 찾아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보훈가족들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농협

영세·고령·부녀농가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부안농협이 지난 3일 휴일도 반납하고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고령·부녀농가를 대상으로 오디수확 및 배 분지 싸우기 일손을 도와 구슬땀을 흘렸다.

부안 농협 김원철 조합장을 비롯하여 60여 명의 직원들은 부안읍 내오리 이백철 소유 오디 900㎡, 내오리 안평농가 오디 800㎡, 이정원 소유 오디 1,900㎡수확, 동진면 당산리 최기환농가 소유 배 1,000㎡ 분지싸우기,

주산면 덕림리 이삼구농가 오디 800㎡ 등 농촌일손 돕기활동을 펼쳤다.

김원철 조합장은 "밭작물 수확철에 가뭄피해가 지속되어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자농가에 시급히 허락 되는 한 지속적으로 일손 돕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 행안면 영농 현장행정 펼쳐

지역주민과 소통·공감·동행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부안군 행안면(면장 김남철)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행안면은 5일 김남철면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직원들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안면 여러 삼마을 하계 평씨 농가를 찾아 양파와 마늘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민 하계 평씨는 "일손을 도와준 행안면사무소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남철 행안면장은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가 익어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